東大新聞
永饒 秦光九 黃金鄭 人人人 發行編輯印刷
主幹 權奇悰 編輯局長 甲寬浩 編輯部長 張義植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3299 8131~9 本社直通 3299 8577
慶州大學 주소 : 경북월성군현곡면 금장리707(681) 전화 :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10代 학도들 출범

張총학생장 "知性과 創造 力量 확대할터"

제10대한동국대학교 총학생회(회장 張仁植)가 지난29일 인계인수식을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한동국대는 제9대 이일식 및 제10대취임식이 이날 오후 4시30분 黃壽永총장을비롯, 兪光震학생처장, 吳榮喆·張哲근등 신임동국단과부 재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학생자치기구가 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 『합리·조의 역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0대 학국단출범을 알리는 기념행사가 10대 부학생장 李炳洙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인수인계식에서 黃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東國의 전환기를 맞아건전한 學風으로 신뢰받는 학생자치기구가 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 『합리·조의 역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0대 학국단 출범과 관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일식회장은 제1부 출범식, 2부 공청회, 3부파달극놀이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합회인합회결성보고도 이날 출범한 제10대학생처장, 吳榮喆·張哲근등 신구 任員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0대 부학생장 李炳洙 단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10대 학도들은 시대의 각부서장평단보다 많은 學識을 익히고 국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총학생장張 (목문과·3) 군은 취임사에서 『80년대 지난 달31일 오후2시30분 총장실에서 있었다.

▲출무부장=김윤길(국문과·3)▲기획부장=박희승(사개·3)▲문예부장=김태홍(국교·3)▲종교부장=문홍식(인철·3)▲섭외부장=유한호(일학·3)▲체육부장=이기명(체교·3)▲여학생부장=정은주(경문·3)

한편 慶州大學 「학도호국단 임계인수식」이 지난달31일 오전11시 金仁鎬학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신·구 호국단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사회학관 소강당(I)에서 있었다.

임명장 수여, 단기 인수인계, 선서, 이·취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인계인수식에서 제6대 학생회장 설동찬 (경영·3) 군은 『경주대학의 알찬 內實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제6대호국단의 각부서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사회부장=설동찬(경영·3)▲

사설

10대 護國團 출범에 부쳐

2학기 開講과 더불어 지난 8月20日 학도호국단 간부진용이 교체되어 引繼引受가 이루어졌다。먼저 지난1년간 여러가지로 어려웠던 여건아래서 創團理念을살리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9대 간부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여 마지않는다。

아울러 새로이 出帆하는 10대 간부들에게는 막중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줄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現行 학도호국단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학도호국단은 학생으로 조직된 護國團體라는 의미와 學生自治活動을 신장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지적간의 적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安保현실을 생각할때 前者의 기본정신에 더해서는 구도 異議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후자인 自治活動의 의미에서 본다면 학도호국단이 많은 학생들로 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운 것이 또한 오늘의 現實이다。

더우기 오늘날처럼 大學街에 자율화바람이 거세게 불고있는 시점에서 학생자치활동은 더욱 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바는 「간부」 학생이라는 「형식」적인 의미가 중요한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신분은 未來의 국가를 이끌어갈 樑樑이므로 부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예비적 측면에서 개발해나가는과정인 것이다。그러므로 學究에 전념할 시간에 허황된 꿈을꾸고 있거나 心身의 수련을 위하여 고뇌와 勞作을 아끼지말아야할 장소에서 安逸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덧우기 高校에 한 새로운 전통의 창출자여야 할것이다。전통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시간적인 연륜이 그 전부는 아닌 것이다。또 예제도나 관습에 대한 반성과 취사선택 없는 고수가 전통을 지키는 바른 길이 아닐도 명백하다。

傳統은 계승과 함께 새로움을 거듭나야 한다。끊 알다시피우리는 앞으로 2년후면 개교80주년을 맞는다。따라서 우리들의 의지는 80年을, 아니 그 이상을 내다보는 巨視的 안목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帝國主義의 諸理論에 관한 小考

과시즘, 新帝國主義的 精神서 연유

東岳論壇

Ⅰ. 머리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논의가 연면히 집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도 매우 다양하다.

제국주의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Disraeli가 1874년에 제국과 자유는 병존할 수 있다는 연지에서 제식민지를 본호관세와 공동방위로서 통일적 제국을 형성해야만 한다는 「帝國聯合」이라는 신기조를 내건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도 이론상의 논쟁적 개념으로 동장되지는 않았다.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논쟁적 개념으로 등장된 것은 J.A.Hobson이 「帝國主義論」을 출간한 이후의 일이다.

제국주의의 형태와 논리의유사성으로인하여 다음과같이원인에따라 크게4가지로 구분하여 볼수있다.

첫째,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해석으로 「제국주의는 이익을 가져다 줄수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들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계층은 영국의 重商主義學派를부터 20세기 독일의 이탈리아, 일본의 金融主義者들로서 帝國에 의한 人的·物的 자원의 확보와 상품, 자본, 잉여인구의 배출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다.

그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重農主義學派 Adam Smith

David Ricardo, J.A.Hobso 등은 제국주의가 일부 계층에게 이익을 제공할지는 모르나 전체로서 국가에게는 無益하다고 주장하며 국내경제의 재조정과 자유무역에 의해서만이 제국주의가 제공하지 못한 이익을 향유할수있다고 한다.

또한 맑스주의 이론가들도 帝國主義를 경제적 측면에서 考察하였는데 그들은 제국주의를 資本主義의 최후의 단계로서 國內 자본주의경제가 독점적이 되고 他國占資本主義 國家와 경쟁으로 인하여 과잉생산과 잉여자본의 배출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Nicolai Lenin과 N.I.Bukharin의 견해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향을 이 있지만 資本主義 발달의 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관한 이론적 분석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Lenin의 帝國主義論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의 다섯가지의 기본적인 경제구조의特質과 세 가지의 특수한 역사적 지위로 구성되어있다.

Lych Lenin에게 앞으로 이들의 帝國主義論에 대해 간략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Hilferding의 帝國主義論

Hilferding은 帝國主義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근대 식민정책」 「근대 보호정책」 「금융자본의 대외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의 대부분은 금융자본의 성장으로 인한 제국주의의 정치적 특성에 있었던 주요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내발전에 쏠아졌기때문이다.

그의 저서 「Finance Capital」에서 Bukharin은 帝國主義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우리는 帝國主義를 金融資本의 政策이라고 하나 Ideology 라고도 할수 있다. 같은 맑스주의로 自由主義는 한편 產業資本主義의 政策 (例 free trade) 이며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Ideology를 뜻한다.』

그는 帝國主義를 政策이나 Ideology라는 차원에서 특수한 發展段階에서 나타난 世界經濟의 特性으로 발전시켜 國際的 分業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을 分析의 초점으로 삼았다.

Bukharin은 資本의 國際的 集積과 集中을 帝國主義의 경향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t trust)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하였다.

Bukharin은 帝國主義의 경향을 다섯가지로 분석하였는데 첫째, 생산및 자본의 집중, 둘째,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의 발생, 셋째, 자본의 수출, 넷째, 독점적 자본가 단체간의 세계분할, 다섯째, 자본주의열강간의 세계영토의 분할을 들고있다. 이 다섯가지의 특질을 종합하여 Lenin은 제국주의를 「독점과 금융자본의지배가 확립되고 자본수출이 커다란 의의를 획득하며 국제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모든 자본주의 강국에 의한 전세계 영토의 분할이 완료된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또한 특수한 「독점」 단계의 세가지 특질로서는 첫째, 獨占 단체가 Trust에 의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의 최강국에 의해서 지구의 영토분할이 완료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Lenin은 帝國主義의 관련된 論文을 많이 발표했지만 그의 대표작은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이다. 이것은 그가스위스에서 망명생활을 하고있었던 1916년 전반기에 탈고하였지만 사정상 즉시 출판되지 못하고 1917년 4월에야 러시아의 페트로그라드에서 출간하였다.

2. Bukharin의 帝國主義論

Bukharin에 의하면 獨占의 傾向은 競爭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獨占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코 완전한 獨占은 달성될 수 없기때문에) 競爭을 격화시켜 國家와의 緊張을 긴밀하게 하여 국가자본리스트 (state capitalist trust)의 競爭을 배가 심화하고, 자본수출이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며 국가적 Trust에 의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의 최강국에 의해서 지구의 영토분할이 완료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또한 특수한 「독점」 단계의 세가지 특질로서는 첫째, 獨占資本主義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전하는 과도적 단계, 말하자면 공산주의혁명의 전야를 의미하는것으로 파악하였고, 둘째는 帝國主義의 기생성과 부패는 독점의 전체제적 諸現象으로부터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셋째는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규정은 독점자본의적 모순과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라는 양면적 전개과정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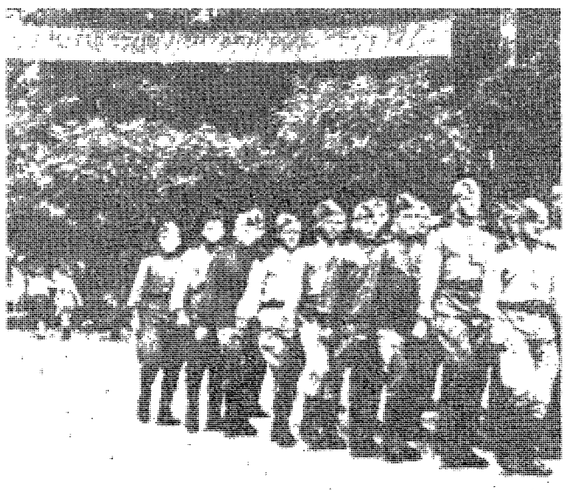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Lenin은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주의단계의 대내·외적 경제체제로 파악하였고 제국주의의 붕괴는 곧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는 아니며 동시에 그것은 共產主義革命의 前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제국주의에 관한 해석은 다양하며 그가운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던 제국주의의 경제적 해석중 맑스주의적 분석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이전시대의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에 의한 제국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Cohen 은 종합적으로 제국주의를 「政治的·經濟的, 直接·間接으로 한국가가 다른 국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신식민주의 (neo-colonialism) 의 발흥으로 인하여 현대 제국주의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강조한다. 중심국 (the center) 은 제국주의는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주변국 (the periphery) 은 세계의 저개발국가들에게 미치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속의 개념은 후자의 견해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섯가지의 특질로서는 첫째, 생산및 자본의 집중, 둘째,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의 발생, 셋째, 자본의 수출, 넷째, 독점적 자본가 단체간의 세계분할, 다섯째, 자본주의 열강간의 세계영토의 분할을 들고있다. 이 다섯가지의 특질을 종합하여 Lenin은 제국주의를 「독점과 금융자본의지배가 확립되고 자본수출이 커다란 의의를 획득하며 국제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모든 자본주의 강국에 의한 전세계 영토의 분할이 완료된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또한 특수한 「독점」 단계의 세가지 특질로서는 첫째, 獨占 단체가 Trust에 의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의 최강국에 의해서 지구의 영토분할이 완료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이 되기도 했다

帝國主義 國家의 權力과 威信추구 결과

獨占資本主義는 社會主義로의 이전단계

金尙一 〈大學院 政治學科〉

言行一致

鹿野苑

한나라의 政治體制란 그나라 國民의 政治意識, 정치참여도등 여러관점에서 찾아볼수 있을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경우, 政治制度 自體는 항상 自由民主主義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實行과정에서는 非民主的인 점이 적지 않았으니 그 가장 일례가 政權쟁탈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40년에 가까운 기간 民主主義를 實行하는 과정에서 平和的 政權交體가 이루어질수 있었던 예가 없었고 돌이켜보면 政權交體가 여덕적 견해로서 흔쾌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帝國主義에 대한 비판가들은 道德的 해석이 국민을속이고 帝國主義政策에 대한그들의 支持를 획득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혹평한다.

이외에도 帝國主義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자들은 주로 生物學者, 政治學者, 社會心理學者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비논리적이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사실에 기인했다기보다는 神秘主義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제국주의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견해로서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말하기를 국가는 근거지, 전략물자, 원조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보적 차원의 문제이지 나 또는 타 국가에 의한 先占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위인에 의한 제국주의의 발전은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동기는 되나 그것만으로 인하여 안보는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팽창에 의해서 국경을 넓어 타 지역과 주민을 통제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는 불안전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맑스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많으며 그들은 제국주의의 본질이나 인과관계보다는 현상에 치중하였다.

그 후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행해졌는데 본고에서는 근대적 견해를 중심으로 여러 부류관점중 제국주의의 원인을 근거로하여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 보고 현재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해석중에서 특히 부하린·히잔딩, Hilferding, Bulcharin, Lenin 등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끝으로 문제점과 현대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帝國主義理論의 多樣性

帝國主義가 존재했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비평, 사과 또는 찬양을 위해서였다.

역사상에나타났던 수많은제국주의 이론들을 고찰해볼때 帝國主義의 정의는 어느 한 학자는 「자본가에게는 생산력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자들은 주로 生物學者, 政治學者, 社會心理學者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비논리적이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사실에 기인했다기보다는 神秘主義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제국주의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견해로서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말하기를 국가는 근거지, 전략물자, 원조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보적 차원의 문제이지 나 또는 타 국가에 의한 先占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위인에 의한 제국주의의 발전은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동기는 되나 그것만으로 인하여 안보는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팽창에 의해서 국경을 넓어 타 지역과 주민을 통제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는 불안전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인에 의한 제국주의의 발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동기는 되나 그것만으로 인하여 안보는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팽창에 의해서 국경을 넓어 타 지역과 주민을 통제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는 불안전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安保的 見解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國家는 자신을위하여 權力과 威信(Prestige) 추구하는 과정에서 帝國主義的이 된다는 見解가있다.

셋째, 帝國主義에 대한 도덕적 견해로서 道義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帝國主義는 全體主義的 支配로부터 人間의 해방과 우월한 문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 되어진다.

이것의 例로서는 영국의 「백인의 의무」 드랑스의 「선교해위」, 미국의 「명백한 운명」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독일의 「범게르만주의」 「공산러시아와 중국의 해방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見解는 자유주의가 成長하고 대중의 정치참여와 함께 帝國主義의 팽가에 대한 民衆의 認識이 성장함에 따라서 반반히 사양되었다.

帝國主義에 대한 비판가들은 道德的 해석이 국민을속이고 帝國主義政策에 대한그들의 支持를 획득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혹평한다.

이외에도 帝國主義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학자는 Rudolf Hilferding, Nicolai Bukharin, vladimir Lenin, Paul Sweezy, Mag doff의 帝國主義理論이 있으나 지면관계상여기서논평하고자한다.

Ⅲ. 古典的 맑시스주의 帝國主義理論

帝國主義라는 말이 맑스주의자들의 理論에 도입되게된 것은 1900~1920년사이인데 이때부터 제국주의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기여한 학자는 Rudolf Hilferding, Nicolai Bukharin, vladimir Lenin 등이 있었다.

1. Hilferding의 帝國主義論

Hilferding은 帝國主義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근대 식민정책」 「근대 보호정책」 「금융자본의 대외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의 대부분은 금융자본의 성장으로 인한 제국주의의 정치적 특성에 있었던 주요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내발전에 쏠아졌기때문이다.

그의 저서 「Finance Capital」에서 Bukharin은 帝國主義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우리는 帝國主義를 金融資本의 政策이라고 하나 Ideology 라고도 할수 있다. 같은 맑스주의로 自由主義는 한편 產業資本主義의 政策 (例 free trade) 이며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Ideology를 뜻한다.』

그는 帝國主義를 政策이나 Ideology라는 차원에서 특수한 發展段階에서 나타난 世界經濟의 特性으로 발전시켜 國際的 分業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을 分析의 초점으로 삼았다.

Bukharin은 資本의 國際的 集積과 集中을 帝國主義의 경향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t trust)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하였다.

Bukharin은 帝國主義의 경향을 다섯가지로 분석하였는데 첫째, 생산및 자본의 집중, 둘째,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의 발생, 셋째, 자본의 수출, 넷째, 독점적 자본가 단체간의 세계분할, 다섯째, 자본주의 열강간의 세계영토의 분할을 들고있다. 이 다섯가지의 특질을 종합하여 Lenin은 제국주의를 「독점과 금융자본의지배가 확립되고 자본수출이 커다란 의의를 획득하며 국제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모든 자본주의 강국에 의한 전세계 영토의 분할이 완료된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또한 특수한 「독점」 단계의 세가지 특질로서는 첫째, 獨占 단체가 Trust에 의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의 최강국에 의해서 지구의 영토분할이 완료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Lenin은 帝國主義의 관련된 論文을 많이 발표했지만 그의 대표작은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이다. 이것은 그가스위스에서 망명생활을 하고있었던 1916년 전반기에 탈고하였지만 사정상 즉시 출판되지 못하고 1917년 4월에야 러시아의 페트로그라드에서 출간하였다.

83學年度後期大學院 博士學位取得者

◇孫八洲 博士 ◇韓龍奭 博士 ◇金在福 博士 ◇韓冕熙 博士

◇金熙玉 博士 ◇兪世濬 博士 ◇李仁錫 博士 ◇文龍植 博士

◇李起運 博士 ◇胡敎純 博士 ◇金光布 博士 ◇李正一 博士 ◇金純一 博士

83學年度後期大學院 碩士學位取得者

◇大學院

◇行政大學院

◇經營大學院

日의 對韓半島政策

韓半島분단상태가 對韓政策의 구심점

日의 對北접촉 政府차원의 성격띠어

等距離外交, 東亞·자유진영 결속저해

"韓國의 犧牲으로인해 日本「경제大國」발돋움"

金仁鴻 <慶州大교수·國際政治>

金炅春 <中央僧伽大교수·韓國史>

인 面에서의 하정분업 체제라든가, 정치적측면에서 等距離實利外交는 이를 충분히 뒷바침해줄……◇
뿐 아니라, 고조된 對日감정에 近日 그들의 歷史歪曲은 우리로서 실로 감당키어려운 弱者의……◇
분노라 아니할 수없다。이렇게 불투명한 韓·日관계의 제반여건을 안고 持續된 兩國의 정상……◇
회담은 우리에게 劣等感마저 자아내게하는 赤信號의 연속이었으며 아울러 곧 實現될 兩國頂上……◇
會談 역시 큰 懸案問題를 안고있어 本紙에서는政治, 經濟, 歷史的으로 이를 살펴본다。<편집자註>……◇

Ⅰ

한 世紀前만 하더라도 國際社會에서 周邊的인 위치에 처해있던 日本이 오늘날 世界史의 흐름에 中心的인 지위로 들어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종래의 閉鎖性과 孤立性으로부터 탈피한 높은 開放性과 對外依存關係의 性向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特徵속에서 抽出되어지는 日本外交政策의 基本行態는 크게 두 가지로 整理될 수 있는데, 첫째는 强大國과의 協力政策을 통한 國際位階秩序에의 參與이고 둘째는 아시아主義의 持續的인 추구를 들 수 있다。

日本의 외교정책의 결정행태가 여하튼지 간에 일단 모든 대외정책은 日本의 地政學的 또는 歷史的 전통에서 派生되어지는 것으로 불리우는 大勢順應主義 또는 고립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强迫觀念이 日本으로 하여금 그의 대외정책을 强大國과의 협력관계에 力點을 두게하는 것은 당연한 歸結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강대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二重性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즉 일본의 對外行態는 强大國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東南亞및 약소국가들에 대해서는 고자세를 취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것이다。

다른 한편 現代日本外交에 있어서 아시아국가에 대한 執着도 日本外交政策의 하나의 重要한 基調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發見할 수 있다。

오늘날 日本이 다른 아시아·太平洋勢力과의 사이에 論議되어 지고 있는 環太平洋共同體등의 구상은 現代的意味에 있어서의 아시아主義의 發顯이라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日本에게 있어서 아시아主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美國과의 관계에 있어서 諒解와 協力이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中共·蘇聯과의 競合과 견제를 克服하여야만 하는 고충한 告白으로 日本을 말할 때 사람마다 感情이 다른 것같다。그것은 年齡과 世代에 따라 體驗에서 오는 對日觀의 差異가 다를 수 밖에 없기때문이라 생각된다。이것은 바로 歷史認識의 基底가 다르기 그럴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해가 된다。

새로운 韓·日關係의 定立을 위하여 有史以來 첫 國家元首의 公式訪日을 앞두고 都下 紙上에 論議에 올려진 이 時點에서 各界人士들의 淡日率直한 意見들이 提示되고 있어 많은 示唆를 받고 있다。國益을 위하여 매우 기꺼운 일이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을 것같다。某紙上 執筆者는 한결같이 政治人, 經濟人, 政治學敎授등이다。여기서 한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역사학자들의 意見도 좀 들어보고 싶다는 心情이다。다시 말해서 韓·日關係史上으로 본새 時代의 전망에 대한 所見이 있을것이라는 것이다。

1、對日 基本姿勢

외교를 정의할때 흔히 Give and Take로 표현한다。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그리고 외교는 국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진리이다。여기서 느끼는 것은 物質的인 것이 더 큰 비중을 점한 말같기도 하다。互讓精神에서 새로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外交의 原則이요 상식이라면, 지금까지의 韓·日관계사로 보아서 우리가 얻으려고 한 것이 뚜대로 된 예는 흔하지 못했다。그것은 역사상 기록으로 보아 거의 실패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다。물론 古代韓日關係史로보면 三國文化의 일방적 東漸時代니까 일동의 우월감에서 만족감을 充족시켜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또하나는 德川家의 江戶幕府와 明治維新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本의 對韓政策은 「韓半島에서의 分斷狀態의 現狀維持」란는 政策의 계속성속에서 그때 그때 狀況的인 변화만을 겪어왔다고 볼수 있다。

65년 韓·日國交正常化의 契機로 日本의 對韓政策은 일련 한국일변도적인 政策의 定立을 보았으나, 그 이후에전개된 國際情勢는 日本의 對韓政策의 가변성을 높여 주었으며 그것은 주로日本의 한국의 安保에 대한 認識의 변화와 對北韓關係의 확대를 위한 노력에서 나타난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반도분단의 現狀維持政策, 즉 分斷固定의 경우 이는 일본의 미국과의 안보유대를 해치게되며, 반면에 일본이 미국의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는 곧 산세력으로부터의 군사적인 보복의 대상이 되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부전상태의 유지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정책적 선택으로 간주한것이다。

Ⅱ

戰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本의 對韓政策은 「韓半島에서의 分斷狀態의 現狀維持」란는 政策의 계속성속에서 그때 그때 狀況的인 변화만을 겪어왔다고 볼수 있다。

65년 韓·日國交正常化의 契機로 日本의 對韓政策은 일련 한국일변도적인 政策의 定立을 보았으나, 그 이후에전개된 國際情勢는 日本의 對韓政策의 가변성을 높여 주었으며 그것은 주로日本의 한국의 安保에 대한 認識의 변화와 對北韓關係의 확대를 위한 노력에서 나타난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반도분단의 現狀維持政策, 즉 分斷固定의 경우 이는 일본의 미국과의 안보유대를 해치게되며, 반면에 일본이 미국의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는곧 산세력으로부터의 군사적인 보복의 대상이 되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부전상태의 유지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정책적 선택으로 간주한것이다。

Ⅲ

65년 韓·日 國交正常化를 실현시킨 「한국과 日本國간의 基本關係에 관한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정부가 유엔總會 決議에 따른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合法政府임을 확인했다 「두개의 韓國」觀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저변에 항상 깔려 있었다。

다만 國交가 正常化된 한국과는 公式外交關係를, 외교관계가 없는 北韓과는 非政治的 교류를 확대하여 相互理解의 증진을 도모해 간다는 對北韓基本政策이 그것이다。

日本은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重要하다」는 것을 공식적인 對韓半島情勢의 基本認識으로 표명하고있다。

이것은 한국의 安保를 日本의 安保와 가장 강력하게 관련지었던 69년의 닉슨·사토共同성명에서 변화된 일본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일본은 이와같은 정세인식을 근거로 소위 그들이 말하는 「全方位外交」의 틀속에서 남·북한 등거리의 교류를 촉진케하는 평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日本은 年例的으로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力說하면서도 어디까지나 日本의 安保를 위한 한국과 「反共和 平統」을 同一視하여 북한과의 交流를 억제하는 결과 안될 것이다。이는 北韓의 對日觀과 日·北韓접촉 확대는 북한의 고립을 초래한다는 기본노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면을 보더라도 한반도 통일이후의 잠재력은 상당한 것이고 거기에다 한민족이 지니고 있는 강렬한 반일감정의 응집력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한다。

결국, 이와같은 잠재력은 일본으로하여금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 더 적확하게는 분할통제 (divide and conto) 와 부전상태의 유지를 그 정책목표로 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될 경우, 일본의 입장은 상당히 어렵게된다。그것은 우선 일본이 전쟁 재발의 자기나라에 있는 미군사기지의 사용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부정적입장을 취할 경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금이 갈 것이며 그와 아울러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즉 일본은 한반도 전체의 통일이 자유진영의 강대국의 어느 나라에 기울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강국과의 관계에서만 고려되

韓日關係의 現況과 展望

◇…… 우리는 恨에 점철된 歷史意識속에 日本을 생각한다。戰後 그들의 고도경제성장과 顯隔한 국
◇……제적 지위의 향상은 韓半島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自세에만 급급해 우리들의 뇌리에 더욱 과
◇……리감을 싹트게 한 것도 사실이다。혹히 地政學的인 이유로日本은 그 연계성을 끊을래야 끊을 수없
◇……는 가깝고도 먼나라로부상되는 한편 그들의 경제적 속성과 함께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우리의 盲目的 의지는 날이 갈수록 深化되어가는 느낌이다。65년도 國交正常化 이후 경제적

1、問題의提起

지리적으로는 가깝고 감정적으로는 먼 나라인 日本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政治的、經濟的、文化的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있다。新羅時代부터 왜구의 침입으로 고난을 겪어온 우리민족은 근세에 이르러 36년간을 일본식민통치를 받음으로써 對日國民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외교노력이나 경제협력 또는 日本大衆의 사회발전만으로는 쉽게 풀릴 것같지가 않다。더구나 역사적으로 항상 실리만을 추구해 왔고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등을 로 불리워지고 있는 정부·민간합작의 주식회사형 日本과 경제협력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및 제2차 세계대전의 폐대국이었던 서독과 프랑스가 EC에 가입하여 서로 국제분업을 통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만 다룰 수는 없는 입장에 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급속히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즉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필요한 資本財및 원자재 등은 日本大衆의 사회발전만으로는 쉽게 풀릴 것같지가 않다。더구나 역사적으로 항상 실리만을 추구해 왔고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등을 로 불리워지고 있는 정부·민간합작의 주식회사형 日本과 경제협력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및 제2차 세계대전의 폐대국이었던 서독과 프랑스가 EC에 가입하여 서로 국제분업을 통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만 다룰 수는 없는 입장에 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급속히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즉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필요한 資本財및 원자재 등은 日本大衆의 사회발전만으로는 쉽게 풀릴 것같지가 않다。더구나 역사적으로 항상 실리만을 추구해 왔고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등을 로 불리워지고 있는 정부·민간합작의 주식회사형 日本과 경제협력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

2、韓日經濟關係의 問題點

연도별 對日輸出入을 보면 1968년에는 수출100백만달러、수입 64백만달러로 對日무역적자는 542백만달러 이었으나 1983년에는 수출 3、358백만달러、수입 6、233백만달러로서 對日貿易赤字는 2、880백만달러에 달하여 그 적자폭이 약 3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對日貿易逆調의 원인은 첫째、日本의 資本材 및 中間材를 수입해오는 산업구조에 있다。日本의 자본재로 건설된 생산시설의 확충은 더욱더 對日輸入을 증가시킬 한편 일본에서수입하여 수출용 完製品을 만들 수 있는 산업구조는 수출증대가 수입을 유발하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둘째、기술및 자본의 日本 의존도가 높은데서도 기인한다。

<經商大교수·貿易通信>

세째、일본특유의 非關稅障壁으로 對韓輸入을 규제하는데 있다。日本特有의 비관세장벽에는 행정지도、검사제도、통관절차、유통구조및 商慣習을 통한 규제방식이 있으며、특히 한국산 농산품의 수입을 규제하고있다。관세율을 인하하는데 있어서도 선진국의 압력으로 對先進國 關稅率만 인하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開發途上國에는 불리하게 관세율을 조정하고있다。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신발류、어개류 등은 GSP혜택도 받지못하고 關稅障壁이 있어서도 日本은 낮은수준의 기술만을 한국에 이전시켜왔다。1962년부터 1983년까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2천6백40여건이며、이 가운데 56%가 日本에서도 일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바라는 尖端技術은 없고、낮은 수준의 기술뿐이다。日本과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한 기술과제는 25개전이 있는데 이 중 우리나라가 기술이전을 바라고 있는 과제는 醫療用高分子材料의 개발、建設機械프로세스개발、化學센서의 개발、遺傳子工學을 이용한 生理活性物質의 대량생산프로세스확립、植物生理活性物質의 利用硏究등 5개에 지나지 않는다。우리나라 企業이 日本에 요구하고 있는 尖端技術은 첨단기술분야인 半導體、機械工業등 9개분야 1백개부문이다。그러나 日本이 기술을 이전시키면 韓國의 수출품이 日本에 逆流한다는 부머랭(Boomerang)효과를 두려워하여 日本은 韓國이 요구하는 尖端技術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3、韓日經濟關係의 改善

對日感情을 해소시키고 韓·日 양국간의 經濟協力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兩國間 경제협력이 韓國보다는 日本에도 도움이 된다는 공통의 인식이 양국민이 가져야 된다。이러한 공통의식이 확대되어가는 양국간 貿易不均衡의 개선、日本 첨단기술의 한국에의 이전、對日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關稅 및 비관세장벽 완화등의 현안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얼마나 성실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日本과 대등한 일찬에서 經濟協力을 도모하려면 日本産 資本財 및 中間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産業構造를 개편해야되고 生産財의 輸入先도 多邊化시켜야 한다。尖端技術面에서도 무조건 日本에서만 이전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신이 技術開發投資를 확대하여 첨단기술을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그리고 技術導入國도 다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日本에 農産物輸出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日本市場을 조사하여 日本國內産業과 마찰을 야기시키지 않는 신규상품을 개발하여야할것이다。

원래 經濟弱國과 經濟强國과는 수평적、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특히 日本은 强者에는 강하게 대하는 島國根性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日本이 한국에 플러하게 한국산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아직도 兩國에는 韓日協力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번 우리나라 대통령의 訪日이 對日國民感情을 해소시키고 양국의 공존공영을 위한 대등한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4、韓·日 尖端技術 移植과 對韓輸入擴大

전세계 GNP의 7·5%、세계교역량의 8%를 점하고 있는 日本은 명실공히 세계제2의 經濟大國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도 對外援助에는 계속 인색하며、원료·자원만 수입하고 제품수입은 기피하는등 自國의 경제적이익추구에만 급급하고있다。84년도 日本의 무역흑자는 3백억불을 초과하리라는 전망이며、국제수지도 절차 흑자로 전환하여 10년후에는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리라고한다。이러한 日本이 ODA자금공여에 있어서 양30억불로 세계제4위에 있으며 開發途上國 수출증대를 위한 일반특혜관세에 의한 수입은 전체수입의 4%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각종 貿易障壁을 설정하고 있다。8·15광복후 20년만에 韓·日國交가 정상화 되고 또 내년이면 국교20주년이 된다。지난 20년간 우리의 對日貿易赤字累積額이 2백68억불에 달하여 全體赤字額의 76%나되어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최대 壓迫要因이 되었다。日本의 시장개척을 포함한 근본적인 시정책을 韓·日간의 여러 모임때마다 주장해왔으나 日本의 財界人들이 「부머랭」효과를 두려워하여 이때 日本의 제품수출을 구실로 對韓技術이전의 不當性을 강조하고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韓·日양국간의 經濟力및 기술수준의 현격한 차이때문에 日本이 어느범위의 기술을 우리에게 移轉해 주었고 日本經濟에 부담을 줄것이라는 것은 紀變에 不過한 것이다。여기서 日本의 면모에 韓國民의 經濟的 마음다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5、韓·日 文化交流

黃河문화권의 영향을받아 韓民族문화를 창조 하여 3國시대와 渤海시대에 동해는 앞마당 연못처럼 하여 우리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고 또한 통일신라하대에는 靑海鎭을 근거지로 서해와 남해는 완전히 우리의 바다로서 일본은 그영향하에있었다。韓國문화는 일본문화의 支柱였고 일본으로 부터 찾아보려도 찾을 수 없을것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러 일본은 한국문화의 씨가 싹 텄고 자라게 되었다 日本의 불교와 유학 그리고 예술문화에서 한국문화요소를 除하고나면 남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정도로 일본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인가。明治維新이 선구문명을 수용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日本에서 받아넘는 대일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역사는 변했고 일본은 근대화에 박차를가해 옛 스승의나라보다 앞서고 드디어는 배은망덕 하게도 짓밟아버렸고 그 문화를 욕되게 한 것이다。하늘은 그들을 일본인의 버릇없는 행위를 좌시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는 光復이 있고 오늘의 이 時點은 尖端科學技術文明時代로 접어들었다。韓國文化는 徐兩 옛 東海文化圈의 主人公의 位置를 되찾아 이제 韓·日文化의 交流問題를 단안에 놓고 太平洋圈家時代를 맞이하게 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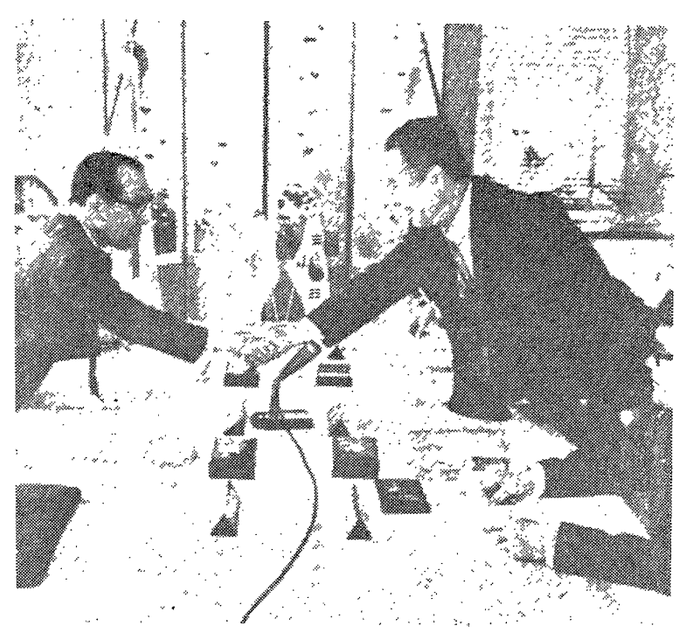
그러나 日本은 世界經濟大國으로서 物質文明의 豐歌에 陶醉하게에 바빠 이웃나라와의 共存共榮을 잊어버린듯 하다。오늘의 日本經濟가 이룩의 犧牲위에 덮고 이러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經濟的先後進問題가 日本의 獨走와 競爭과 關聯있다고 할때、先進日本經濟와 그로 因한 日本文化의 理想과 文化의 紐帶및 共存關係에 對하여 日本은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의 所任을 떠맡게 될것인지 궁금하다。

日本은 西歐先進國家의 科學技術文化를 導入해서 오늘의 發展과 繁榮을 누리고 있으나 아니다。原來 自生的인 固有文化가 이제 日本도 後進開發上國家들을 돌보며 共生共榮의 時代가 온것이다。

日本文化가 이제 世界에 내놓을수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成就는 20世紀의 普遍的인 科學技術産業의 尖端性이라고 할때 韓·日文化交流및 經濟交流의 當面課題는 잠된 互惠의 內實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日本이 眞實로 善與할 수 있는것、그리고 善與해야 할것은 바로 日本의 尖端科學技術産業의 韓國에의 移傳이다。

그러나 日本은 이와 같은 眞正 우리가 必要로 하고 바라는 文化交流를 「부메랑效果」의 忌愛아래 拒否하고 있다。學術은 傳播되고 배우기마련이다。

우리의 祖上들은 日本에 一方的으로 先進文化를 移植해서 가꾸어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했다。江戶時代까지만해도 日本은 韓國文化의 導入을 위하여 營利를 벗어나 우리 通信使의 來往을 열망하였던가。或者는 오늘의 韓日文化交流가 日本大衆文化의 뒤를 보려는 것으로 그들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는 評을 했는데 우리가 眞正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가려내야만 될것이다。이는 비단 文化交流에만 그친 것이 아닐것이다。



▲연일 大學街에서 문제삼고 있는 韓·日兩國頂上회담에 대한 국 방일, 글옥희담등의 云云은 재고해보아야할 문제가 아닐까。

무엇보다 참된 互惠精神이 중요

三國文化의 一方的東流時代 탈피할때

劣等意識서 植民史觀의 歷史歪曲 비롯

검은 것은 써구나! 썬파워 블랙

주식회사 서등

최고 10배의 넘치는 힘!
까만색의 썬파워 블랙— 알카라인 건전지

가장 강력합니다 "과연써구나" 썬파워가 일본 후지(FUJI)전기와 기술 협력으로 새로 개발한 까만색의 "썬파워 블랙"이 강력한 힘으로 건전지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가장 경제적입니다 강력한 힘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가장 편리합니다 최고 10배의 힘을 가진 알카라인 건전지이므로 자주 갈아끼울 필요가 없읍니다.

가장 실용적입니다 용도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읍니다.

- 일 반 용 : 워크맨 등 휴대용 오디오제품에 적합하며 온종일 갈아 끼울 필요가 없읍니다.
- 카메라용 : 필름 10통까지를 계속해서 순간 촬영할 수 있읍니다.

*사용기기: 워크맨, 카메라, 계산기, 완구류등.

썬파워 블랙
까만 전지를 찾으세요

썬파워 블랙 신제품 ALKALINE BATTERY LR6 AM3 1.5V 최고 10배의 힘

신제품

즐거운 휴가철 썬파워블랙은 어느 버스터, 상에서나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읍니다

본사 서울 854-0166 영업국 서울: 강북261-4332 강남676-4516/부산: 051-82-8659/마산: 0551-3-4151
대전 042-72-5344 대구 053-44-9248 광주 062-55-2146/전주 0652-2-7163/원주 0371-42-2851

第892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認可 <우편번호100>

言語와 詩

이번 시리즈는 本社 文化部와 文科大學 國語國文學科生일부가 공동으로 기획, 총12회에 걸쳐 다루게된다。예전과는 달리 교수나 외부필자 및 대학원생을 탈피하여 시를 공부하는 학부생 8명을 필자로 선정했다。정기 합평회 및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폭넓은 내용을 담게되며 참신하고 지적인 대학인의 시각을 볼 수 있으리라본다。

<편집자註>

정서의 함축적 의미체계·확대과정고찰

"우리모국어의「우리것」「우리」로 조명"

한국시의 창조적 가능성 모색

유 임 하 〈문과대 국문과〉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한 용 소 지
3. 김 정 이 현 정 수
4. 정 이 김 서 김 고
5. 신 경 현
6. 정 연 재 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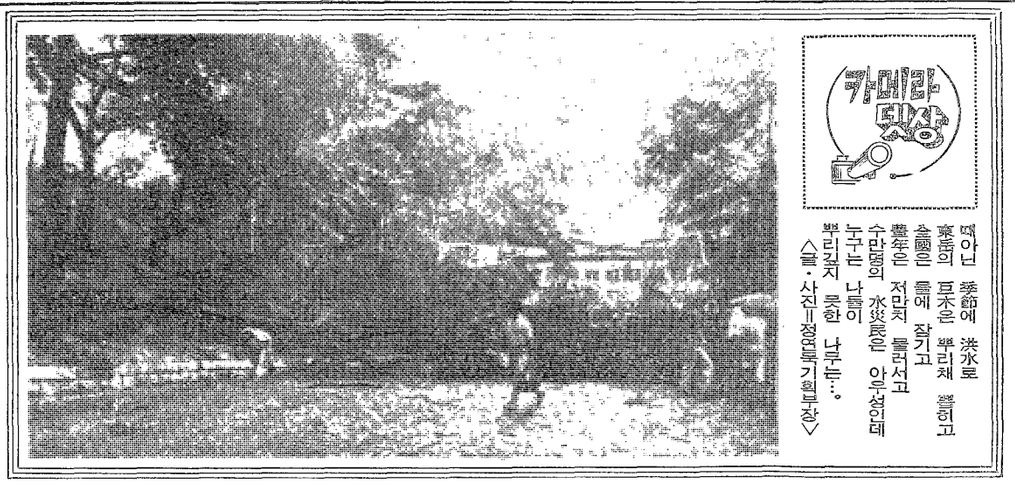
1

언어는 투명하게 개성의 영역에 속하는 분제이다。왜냐하면〈언어의연금술사〉로 불리우는 시인들이그 언어를 가지고〈무엇을〉위해 혹은〈어떻게〉사용하고 있는가에따라 시인의 개성은 표현된다고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모든 언어는 서로 해석될 수 없는세계를 스스로의 내면에 갖지하고 있다〉는 진술과도 같이 K·야스퍼스는 이러한 언어의 고유영역을〈존재의 밝힘:Das Offenbarwerden des Seins〉이라는 차원에까지 끌어올리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언어의 고유영역은 개성의영역의 차원을넘어 문화적경험간의 특수한 상관성을 내포하고있다。동일한 언어를 통해 동일한 정서를 소유케하는 이른바〈언어공동체〉라는 일정한 전통적 문화공간내에서 시인들은 표현의식과 표현내용간의 조화를피하려는 상징체계로 묶여지는 동체적인 문화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민족단위로의 점진적 성숙이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국가어〉혹은〈모국어〉의 지원를 절차 획득하게 되었다。이러한점은 하나의 예로〈단테〉와〈페트라르카〉에서〈괴테〉와〈헤세〉에 이르는 근대이후 민족단위의공동체적인 문화적 산물로서〈시발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하게된다。

그리하여 민족국가에



카메라 단상

땅이닌 季節에 洪水로
東岳의 푸木은 뿌리채 쓸허고
숲國은 들에 잠기고
豊年은 저만치 물러서고
수만명의 水災民은 아우성인데
누구는 나돌이 뿌리짓지 못한 나무는…。
〈글·사진‖정연룩기월부장〉

東方政策과 兩獨關係

I

고자 한다。

II

금세기만에도 두차례의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분단은 「히틀러」가 제3제국을 건설하자 만 12년만인 1945년 5월에 독일군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후 「아데나워」는 서독이 전독일 민족의 민족적 이익을 대표한다는주장을 강조하면서 1955년 9월22일 西獨外交政策의 기본원칙으로서 自由選擧에 의한 政府를 가진 西獨만이 獨逸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第3國에 의한 東獨承認을 西獨에 대한 非友好行爲로 간주하고 그러한 第3國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선포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은 다른 제3국을 통한 동독의 간접적 인정에 대해서도 비승인이나의 교관계단절등의 발협으로 본부·응수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영원이 끝나고、미국의 十字軍 이념도 퇴색해가자 서독은 이제 상황의 안정에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그간 社民黨(SPD)은 연방의회에서의 모든 정치활동을 통해 基民黨(CDU)의 「아데나워」의 외교정책을 독일의 분단을 영구화 시키는 결과에 다다르고 있다고 결고 하였고、정부수립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상을 배출한 社民黨은 對東獨政策과 對東歐諸國政策및 對蘇聯政策을 포함하는 西獨의 「東方政策」(Ostpolitik)을 새롭운 발협으로 정립하기 시작했다。

1969년10월28일 수상으로 선출된 「브란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①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서명 ②우력포기에 대한 소련과의 회담개시 ④모든 공적문제를 다룰 동독정부와의 회담제의 ⑤소련·헝가리의 이해관계에 대한 편밀한 분류 검토 ⑥유럽안보회의의 창설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적입장。이러한 일련의 획기적 조치는동전까지 고수하던 「할슈타인 독트린」을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東方政策」을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 「브란트」 수상의 「동일정책은 유럽발전과 독일문제 사이의연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따라서 수많은 독일인들의 고통받고 있는 분단의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 서독은 우선 긴장해소정책을 통해 동·서독간에 다리를 놓아야만 했다。독일의 민족적 이익은 독일이 동·서진영사이에 불투명하게 서있는 것을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독일은 서구와의 협력、조화、그리고 동구와의 이해를 요구했다。

다시 말해 독일문제는 평화라는넓은 의미에 있어 소련국민과、다른 모든 동구민족들과의 평화를 필요로 했다。

이로써 「브란트」 수상은 서독정책의 우선은 바로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소련」과 「에곤바르」 서독수상과의 頂上會談을 시발로 1972년 5월에는 兩獨間 최초의 國家間條約인 「東西獨一般通行協定」이 정식조인되었으며、1972년 12월21일에는 「東西獨基本條約」이 체결되었다。

III

「東西獨基本條約」 체결이후 東西關係는 별다른 진전없이 지속되다가 1983년 봄부터 東西獨관계는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급속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표면적 동기는、소련이 서독으로 하여금 美國의 「퍼싱Ⅱ」 미사일 배치를 거부하도록 유혹하는 미끼로 東獨의 「호네커」 정부와 「콜」 정부와의 접촉을 권장했으며이것이 兩獨間의 화해를 촉진시키게된 것이다。

西獨의 「콜」 수상도 「유러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격렬한 평화운동의공세를 피하는 奚全瀨으로 東獨과의 관계개선을 이용하는 외적을 갖고있었다。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東獨과의 관계개선은 여야가 정치적 색깔을 넘어 지지하는 서독정부의 기본정책이었다。

83년 4월 동서독을 잇는 東獨고속도로상에서 두사람의 서독시민이 동독경찰의 검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은 서독정부로 하여금 동독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71년8월12일 「목·소조약」이 소련측의 「브란트」와 「콜」에 의해 서명되었다。

브란트는 「미·소 초강대국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의 균형은 경직된 전적인 미래를위한 등·서 긴장해소를 실현시키기 위하서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브란트는 「본·모스크바·워싱턴간의 평화적인 공동작업」을 의미하는 「베를린협정」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東方政策이 오히려 유럽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비판과 동독의 독재정권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東獨과의 관계개선은 서독정부의 기본정책이다。(사진은 소련이 베를린 봉쇄 해제당시)

최근 국제정세는 평화공존을 요구

兩獨은 재통일을위한 노력 계속

東獨內에 있는 「에어푸르트」(Erfurt)에서 「브란트」 서독수상과 「슈토프」(Stoph) 동독수상과의 頂上會談을 시발로 1972년 5월에는 兩獨間 최초의 國家間條約인 「東西獨一般通行協定」이 정식조인되었으며、1972년 12월21일에는 「東西獨基本條約」이 체결되었다。

III

「東西獨基本條約」 체결이후 東西關係는 별다른 진전없이 지속되다가 1983년 봄부터 東西獨관계는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급속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표면적 동기는、소련이 서독으로 하여금 美國의 「퍼싱Ⅱ」 미사일 배치를 거부하도록 유혹하는 미끼로 東獨의 「호네커」 정부와 「콜」 정부와의 접촉을 권장했으며이것이 兩獨間의 화해를 촉진시키게된 것이다。

西獨의 「콜」 수상도 「유러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격렬한 평화운동의공세를 피하는 奚全瀨으로 東獨과의 관계개선을 이용하는 외적을 갖고있었다。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東獨과의 관계개선은 여야가 정치적 색깔을 넘어 지지하는 서독정부의 기본정책이었다。

83년 4월 동서독을 잇는 東獨고속도로상에서 두사람의 서독시민이 동독경찰의 검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은 서독정부로 하여금 동독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71년8월12일 「목·소조약」이 소련측의 「브란트」와 「콜」에 의해 서명되었다。

브란트는 「미·소 초강대국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의 균형은 경직된 전적인 미래를위한 등·서 긴장해소를 실현시키기 위하서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브란트는 「본·모스크바·워싱턴간의 평화적인 공동작업」을 의미하는 「베를린협정」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東方政策이 오히려 유럽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비판과 동독의 독재정권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후 「아데나워」는 서독이 전독일 민족의 민족적 이익을 대표한다는주장을 강조하면서 1955년 9월22일 西獨外交政策의 기본원칙으로서 自由選擧에 의한 政府를 가진 西獨만이 獨逸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第3國에 의한 東獨承認을 西獨에 대한 非友好行爲로 간주하고 그러한 第3國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선포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은 다른 제3국을 통한 동독의 간접적 인정에 대해서도 비승인이나의 교관계단절등의 발협으로 본부·응수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영원이 끝나고、미국의 十字軍 이념도 퇴색해가자 서독은 이제 상황의 안정에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그간 社民黨(SPD)은 연방의회에서의 모든 정치활동을 통해 基民黨(CDU)의 「아데나워」의 외교정책을 독일의 분단을 영구화 시키는 결과에 다다르고 있다고 결고 하였고、정부수립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상을 배출한 社民黨은 對東獨政策과 對東歐諸國政策및 對蘇聯政策을 포함하는 西獨의 「東方政策」(Ostpolitik)을 새롭운 발협으로 정립하기 시작했다。

1969년10월28일 수상으로 선출된 「브란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①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서명 ②우력포기에 대한 소련과의 회담개시 ④모든 공적문제를 다룰 동독정부와의 회담제의 ⑤소련·헝가리의 이해관계에 대한 편밀한 분류 검토 ⑥유럽안보회의의 창설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적입장。이러한 일련의 획기적 조치는동전까지 고수하던 「할슈타인 독트린」을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東方政策」을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 「브란트」 수상의 「동일정책은 유럽발전과 독일문제 사이의연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따라서 수많은 독일인들의 고통받고 있는 분단의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 서독은 우선 긴장해소정책을 통해 동·서독간에 다리를 놓아야만 했다。독일의 민족적 이익은 독일이 동·서진영사이에 불투명하게 서있는 것을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독일은 서구와의 협력、조화、그리고 동구와의 이해를 요구했다。

다시 말해 독일문제는 평화라는넓은 의미에 있어 소련국민과、다른 모든 동구민족들과의 평화를 필요로 했다。

이로써 「브란트」 수상은 서독정책의 우선은 바로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소련」과 「에곤바르」 서독수상과의 頂上會談을 시발로 1972년 5월에는 兩獨間 최초의 國家間條約인 「東西獨一般通行協定」이 정식조인되었으며、1972년 12월21일에는 「東西獨基本條約」이 체결되었다。

III

「東西獨基本條約」 체결이후 東西關係는 별다른 진전없이 지속되다가 1983년 봄부터 東西獨관계는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급속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표면적 동기는、소련이 서독으로 하여금 美國의 「퍼싱Ⅱ」 미사일 배치를 거부하도록 유혹하는 미끼로 東獨의 「호네커」 정부와 「콜」 정부와의 접촉을 권장했으며이것이 兩獨間의 화해를 촉진시키게된 것이다。

西獨의 「콜」 수상도 「유러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격렬한 평화운동의공세를 피하는 奚全瀨으로 東獨과의 관계개선을 이용하는 외적을 갖고있었다。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東獨과의 관계개선은 여야가 정치적 색깔을 넘어 지지하는 서독정부의 기본정책이었다。

83년 4월 동서독을 잇는 東獨고속도로상에서 두사람의 서독시민이 동독경찰의 검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은 서독정부로 하여금 동독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71년8월12일 「목·소조약」이 소련측의 「브란트」와 「콜」에 의해 서명되었다。

브란트는 「미·소 초강대국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의 균형은 경직된 전적인 미래를위한 등·서 긴장해소를 실현시키기 위하서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브란트는 「본·모스크바·워싱턴간의 평화적인 공동작업」을 의미하는 「베를린협정」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東方政策이 오히려 유럽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비판과 동독의 독재정권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후 「아데나워」는 서독이 전독일 민족의 민족적 이익을 대표한다는주장을 강조하면서 1955년 9월22일 西獨外交政策의 기본원칙으로서 自由選擧에 의한 政府를 가진 西獨만이 獨逸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第3國에 의한 東獨承認을 西獨에 대한 非友好行爲로 간주하고 그러한 第3國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선포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은 다른 제3국을 통한 동독의 간접적 인정에 대해서도 비승인이나의 교관계단절등의 발협으로 본부·응수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영원이 끝나고、미국의 十字軍 이념도 퇴색해가자 서독은 이제 상황의 안정에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그간 社民黨(SPD)은 연방의회에서의 모든 정치활동을 통해 基民黨(CDU)의 「아데나워」의 외교정책을 독일의 분단을 영구화 시키는 결과에 다다르고 있다고 결고 하였고、정부수립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상을 배출한 社民黨은 對東獨政策과 對東歐諸國政策및 對蘇聯政策을 포함하는 西獨의 「東方政策」(Ostpolitik)을 새롭운 발협으로 정립하기 시작했다。

韓 炫 교수

정년퇴임 교수와

人格남당으로한 知識필요

「經營經濟學」저서등 남겨

『남상 정년퇴임을 피부로 느끼게되니 아쉬움보다는 학교와 학생에 빚을 지것같아 오히려 나간다는것이 죄책감마저 들게합니다』라며 韓炫(경상대·경영과) 교수는 동국관지하 교수연구실을 환하게 밝히듯 밝게웃으며 퇴임소감을 밝힌다。

경상대 경영학과가 신설되면 지난 59년도부터 25년간 本校에 재직하면서 지금은 대학원과 학부강의를 통시에 맡아 노익장

20년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山에 오르는 韓山派이기도 한 韓교수는 『분 이유는 없고 그냥 이것이 좋아서 오른다』고 말을 맺는다。

〈글·사진 이경범기자〉

『몸안을 떠나야 된다는 공허감으로 며칠동안 잘을 이루기가힘들더군요。하지만 어느수필집에서 「환상 앞을내다보라」 들을용하라、큰 희망을 가져라 라는 글귀를 발견하곤 퇴임이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읍니다』라고 말하는 金裕松(산림과) 교수의 건강은 아직도 정정하기만하다。

金裕松 교수

東岳路 오르길 반세기…

學問에 정년퇴임은 없어

大學4년간의 학문적 뜻을키운 東岳、또數理經濟學강의를맡아 후진을 길러온 이곳 동악이야말로 金교수에게는 생활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애착이 큰 곳이다。

이제 金교수는 교수로의 정년퇴임을했지만 『단지 대학교수로 퇴임할뿐이지 학문을 퇴임하는 것은 아니죠』라고 말하는 모습은 매일 아침 테니스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말을실감케 한다。

동악 어느 한적한 마당에 뿌리를 깊이 내린 소나무를 연상시키듯 金교수는 아직도 굳건하다。

〈끝〉

지도휴학制 폐지

학칙개정 회의서 심의결정

지난 28日 文敎部 최종승인

학교당국에서는 지도휴학 폐지가 학칙에 관련된 학칙제48조5항을 삭제할것을 확정、발표했다。

本校는 지난 6월15일 「평협회의 개정여부를 대학에 일임하라」는 문교부의 통보에따라 학칙제정위원회의등의 심의를 거쳐 문제된 학칙을 삭제할것을 만 지도휴학이 발생되기까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의논해 28일 승인을 얻어 29일 문교부에 송부했다。

이번에 삭제되는 특별시험의 과목은 다음과같다。

▲국어갈목및작문 (2)
▲영어(2)▲한국사(2)
▲일반수학 (3)。

신규써클 발대식 오리엔테이션겸해

2학기 신규 두써클인 「자연과학 연구회」와 「동국컴퓨터연구회」의발대식이 오는 7일과 15일에 각각 있게된다。

현재 두 써클은 신입회원을 학과·학년 구별없이 모집하고있는데 동국컴퓨터연구회의 경우 오는 7일에 신입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입시총회를 전자계산소 3층 세미나실에서 가질예정이다。

토목과 장학금전달

최풍운씨등 5명에

토목과 장학금전달식이 지난 7월4일부터19일까지 설악산일대에서있었다。

회원들의 체력단련과팀웍강화、등반기술연마등을목적으로 열린 이번등반에서는 겨울방학중에있을 「日本 북알프스 원정등반」을 위한 등반훈련과 지형측지훈련도 아울러 실시되었다。

토목과 장학금전달식은 현재 두 써클을 비롯 교수·학생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토목공학과사무실에서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질분석기술 고문관으로 활동중인 수질분석과 재직하고 있는 Guo박사는 4년동안 본과 토목과에 출강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받은 강사료 전액(50만원)을 토목과장학금으로 희사한 것이다。

Guo박사는 「同 장학금을3년째 지급해 오고 있는데、이번 수혜자는 다음과같다。

▲최홍준 (4학년) ▲김사한 (〃)▲발철석 (〃) ▲김태원 (〃) ▲노진욱 (〃)

佛敎學生會 법회

吳亨根교수 演士로

佛敎學生會 주최 「개강법회」 정기총회」가 吳亨根 지도교수、회원、동문선배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6일 오후 5시 정각원에서열릴예정이다。

慶州大 교양특강

現代社會와 매스컴

慶州大學 기초과정부주

外國語敎育院 특강실시

수강신청 오는7日까지

외국어교육원 주관 「외국어 특강」으로 TOEFL및 영어회화 강좌가 2개월코스로 오는 13일부터 동국관 (3301)과 석조관에서 각각개강된다。

한편 이번 특강의 수강신청은 오는 7일까지 외국어 교육원에서 접수하며、수강료는 TOEFL은 8000원、영어회화 1·2·3는 5만원을 등록금정이로회원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1일 본관에서 열린 이번 특강을 TOEFL은 영어회화는 David Bell (英·W大) 교수가 담당、월·화·목·금 오후5시부터 1시간동안강의한다。

강의실은 외국어 교육원 사무실 앞으로 날은 시간표등에 대해 물으려는 학생들이 많아 한때 혼잡을 이루기도 했다。

慶州大 學生會 運營방식 바꿔

共同管理制로

慶州大學에서는 학생후생복지조직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서점과 도서관 휴게실 등 대학당국이 맡아 운영하던 학생편의시설을 학생회가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慶州大學 교무과에서는 「조기졸업을 위한 초과학점신청 절차」를 발표、학점 4.0이상이자 3학점 (4.5)까지 신청할수 있는데 신청 배부및 접수는 오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이다。

또한 경주대 교무과에서는 오는 8일오후 1시부터 8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2학기 특별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수 없으며 신청서 접수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교무과에서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시험의 과목은 다음과같다。

▲영어(2)▲한국사(2)
▲일반수학 (3)。

신규써클 발대식 오리엔테이션겸해

2학기 신규 두써클인 「자연과학 연구회」와 「동국컴퓨터연구회」의발대식이 오는 7일과 15일에 각각 있게된다。

현재 두 써클은 신입회원을 학과·학년 구별없이 모집하고있는데 동국컴퓨터연구회의 경우 오는 7일에 신입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입시총회를 전자계산소 3층 세미나실에서 가질예정으로 있다。

복싱부 鄭鎔範·朴珍燁군

웸머대회 파견전서 우승

本校 鄭鎔範 (경웸4)군과 朴珍燁 (경웸1)군이 「제7회 웸머국제복싱대회」 파견 선발전에서 쓸점 우승을 차지했다。 (괄호안은 학점)

福祉시설을 운영

학교·업자 共同管理制로

慶州大學에서는 학생후생복지조직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서점과 도서관휴게실까지 학생편의시설을 확장、이러한 전적인 학교당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양측 국경선에 설치한 자동인장치를 제거하였다는 보장을 받았다。

慶州大 특별시험

초과학점신청도

慶州大學 교무과에서는 「조기졸업을 위한 초과학점신청 절차」를 발표、학점 4.0이상이자 3학점 (4.5)까지 신청할수 있는데 신청 배부및 접수는 오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이다。

또한 경주대 교무과에서는 오는 8일오후 1시부터 8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2학기 특별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수 없으며 신청서 접수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교무과에서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시험의 과목은 다음과같다。

▲영어(2)▲한국사(2)
▲일반수학 (3)。

외국어교육원 특강실시

수강신청 오는7日까지

외국어교육원 주관 「외국어 특강」으로 TOEFL및 영어회화 강좌가 2개월코스로 오는 13일부터 동국관 (3301)과 석조관에서 각각개강된다。

한편 이번 특강의 수강신청은 오는 7일까지 외국어 교육원에서 접수하며、수강료는 TOEFL은 8000원、영어회화 1·2·3는 5만원을 등록금정이로회원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1일 본관에서 열린 이번 특강을 TOEFL은 영어회화는 David Bell (英·W大) 교수가 담당、월·화·목·금 오후5시부터 1시간동안강의한다。

강의실은 외국어 교육원 사무실 앞으로 날은 시간표등에 대해 물으려는 학생들이 많아 한때 혼잡을 이루기도 했다。

福祉시설을 운영

학교·업자 共同管理制로

慶州大學에서는 학생후생복지조직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서점과 도서관휴게실까지 학생편의시설을 확장、이러한 전적인 학교당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양측 국경선에 설치한 자동인장치를 제거하였다는 보장을 받았다。

慶州大 특별시험

초과학점신청도

慶州大學 교무과에서는 「조기졸업을 위한 초과학점신청 절차」를 발표、학점 4.0이상이자 3학점 (4.5)까지 신청할수 있는데 신청 배부및 접수는 오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이다。

또한 경주대 교무과에서는 오는 8일오후 1시부터 8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2학기 특별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수 없으며 신청서 접수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교무과에서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시험의 과목은 다음과같다。

▲영어(2)▲한국사(2)
▲일반수학 (3)。

외국어교육원 특강실시

수강신청 오는7日까지

외국어교육원 주관 「외국어 특강」으로 TOEFL및 영어회화 강좌가 2개월코스로 오는 13일부터 동국관 (3301)과 석조관에서 각각개강된다。

한편 이번 특강의 수강신청은 오는 7일까지 외국어 교육원에서 접수하며、수강료는 TOEFL은 8000원、영어회화 1·2·3는 5만원을 등록금정이로회원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1일 본관에서 열린 이번 특강을 TOEFL은 영어회화는 David Bell (英·W大) 교수가 담당、월·화·목·금 오후5시부터 1시간동안강의한다。

강의실은 외국어 교육원 사무실 앞으로 날은 시간표등에 대해 물으려는 학생들이 많아 한때 혼잡을 이루기도 했다。

"문호개방으로 東·西獨 공존방안 모색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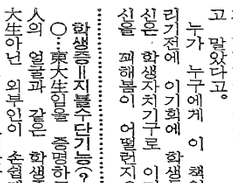
兩獨 화해 고무적

적극적 지원 아쉬워

○…가난과 소외의 역경속에서도 향학열을불태운 근로청소년들의 밝은 웃음대신 졸업식장이 그동안 同窓同樂해온 강산들과 학생들의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하는데…。

그 사연인즉 本校 봉썩클에서 운영해온 야학이 극심한자금난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사제가 혼연일치 지난 6月末 5명의 졸업생을배출해 냈는데 그가운데는 검정고시 합격자도 2명이나 끼여 있었다는것。

요즘 야학을 보는 사회의편협되고 모순된 (?) 시각속에서도 꿋꿋이 노력해온모습을 보며 격려를 보내며 이런 보람있는 사업에 뜻있는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대전대 학생전투대

학생증이 지폐 대용이라니 웬말(?)

○…달달하고 할일 많던 9년 혹국단이 몰려가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는 10년 총단이 지난29일 취임식을 가진뒤 2학기 예산편성등을 마무리 지었지만 혹시가 역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

결산도 않고 떳떳하게(?) 가버린 9년는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이며、또 자세한 내역도 없이 덜시간 만에 편성해 버린 예산은 어떻게 변명해야할 것인지。이래저래 피해받는건 우리 학생들 뿐인듯합니다。

용보도 급하고、해야할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 신뢰받는 학생자치기구가 급선무 일진데 大事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美德이 아닐지?。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본난날은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힘(?)을 모아보지 않으시렵니까。

慶州大학교단 무관심(?)속 出帆

○…2학기 개강과 더불어활기를 찾은 慶州大에서는 지난 31일 소강당에서 입기등록과 무사히(?) 마친 5대 혹국단과 10대 혹국단과의 정식입기에 들어갈 6대 혹국단의 인수인계식이 있었지만혹국단에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불신을 그대로 반영한듯 자리가 텅텅비어 쓸쓸한 행사가되고 말았다고。

누가 누구에게 이 책임을돌리기전에 이기회에 학생들 자신은 학생자치기구로 이미지쇄신을 꾀해볼이 어떨런지요。

도서차량종 8日까지 열람

도서관에서는 지난8일부터 오는8일까지 열람에서 도서차량을 구입하고있다。

1학기에 도서관측의 발표보다 늦게 입기등록을 한 학생들은 도서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했다。

누가 누구에게 이 책임을돌리기전에 이기회에 학생들 자신은 학생자치기구로 이미지쇄신을 꾀해볼이 어떨런지요。

학생증=지불수단가능(?)

○…東大生인들 증명하고東國人의 열등과 같은 학생증이東大生아닌 의부인이 손쉽게 자리해 지니고있어 도서관등 학내출입이빈번하다는데…。

학교근처 술집、닭구장、다방등에서는 공공연히 학생증이지폐로 또는 보증하고있어 이런 일은 꼬집어 말할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안타깝기만。

학생증을 돈대용품으로사용하시는 학형여러분! 「나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하나가 全東國人을 대표한다는것을 잊으셨읍니까。

이제나저제나 변하지않고있는 『錢=학생증』의부등식(?)이 언제나 척결될는지 학형여러분 兩心(?)을 터리시자요。

大衆文化의 方向

지난 70年代에 대학인들이 一민족과 더불어」라는 이념적 기초를 창출하면서 일어난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와 민속문화의 전개는 역사의 필연적 요청이었다。

즉,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말살·왜곡된 고유의 문화를 되살리고, 사회경제면에서의 파행적인 근대화가 낳은 정신적공백상태를 메우며, 특수층에 의해 형성된 서구문화에 대한 비판적 전통문화의 계승작업이 민족성에 중점을 두어 대학사회에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의 진정한 문화, 민족의공동체적 삶의확보 과정은 권리의 획득과정 전체에수반되는 모든 노력의 총화라고 할때 현재 우리의 문화 현실에 가해졌던 서구문화의 반민족적 영향과 함께 오늘의역사적 현실에 부응하는 민족문화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대중문화의 속성은 소비성이 높은 감각문화를 양산함으로써 민중의 자발적 문화 욕구를마비시켜 버린다。 또한 정책적전통계승 작업에의한 그릇된방향들은 민족문화 창달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민중들의 공동체적 삶의확보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며 현실적인식없이는 탈춤·판소리·민요를 포함한 민중예술에 얄팍하는피의식과 어떤 독창적이며 발전적인 시도도 우리 문화의 참된 계승관는 별개가 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민족문화 창달이란는 당위는 대학으로하여금 전통문화의 접근을 유도하여 그하나로 탈춤이라는 기층문화에 관심을 갖게된다。 한국문화의 전위체로서 대학문화가 다분히 선구지향적 성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에 대한 스스로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상승작용으로 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의 대학마다 탈춤써클이 생기는 양적팽창을 거듭해왔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양적팽창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모순에 대한 70년대 이후 대학인들의 끊임없는 극복의지와 민족문화 실현의 열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때까지 전통적인 기존 탈춤을 고수하던 대학사회의 탈춤은 각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극 운동은 비단 대학에서 그치지않고 70년말이나 80년대초를 전후로하여 농촌과 도시변두리, 공단지역, 교회등지에서 뜻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산되고 공동창작, 공동작업으로 뿌리를 내리고있다。 이과정은 문화운동 주체의 결속력과 이해관계의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극화함으로써 「더불어 어울려 논다」는 대동놀이의 가능성을 실현해 보이고있다。

그러나 마당극 운동이 전개되면서 대학인들은 필연적 기본결의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 민중층의 생활 그속의 부대낌 속에서 놀아졌던 탈춤·농악들은 대학인에 이른것이다。 그러나 탈춤·농악·민요등 민중예술의 실질 담당계층이 되어야 할 민중은 이미 정책적 대중문화의 강요속에서 미의식과 판단의식, 생활양식이 획일화되고 사회적 눈감에 빠져 대학내 문화운동의 최종적 도달점인 민중성및 현장성의 확보는 더욱 어렵게되고있다。

여기에서 소비문화에의해 드리워진 두꺼운 껍데기를 벗고, 갈롯어진 민중의 문화창조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민중 생활속의 예술을 실현·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민중 공동체적 회의식의 예술적 승화』라는 민중의 현대적 계승과 대학인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시대의 일반민중들에게 되돌려져야한다는, 대학의 마당이 아니라 일반민중들의 생활마당에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피할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려진 것이다。

다시말해 대학사회의 문화운동의 주체들은 대학내에서 그 실리적 대립에서 비롯된 국로분단이라는 가장 본원적인 모순을 나타낸 말이 아닌가 한다。

▲원시적 인간은 본능의 욕구충족에만 급급했을뿐 다른 세계를 설계하지는 않았던것으로 보인다。

차츰 文明의 발달로 말미암아 보다더 나은, 理想的인 목표를향해 수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의 문명을 이룩하였다。

또한 사상의 경과에 따라 좋고 좋기는자격이 되고, 後退는 서로 간격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前進는 폭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人之常情 이다。 ▲특히 이 넓힘과 좁힘을 결정하게된 것이 會를 결성하게된 동기라고 말한 안네나 희장한룬은 『써클들이 배양되어 있지않은 것이 활동의 장벽』이라며 『학교의 무리한 지원을 기대할수 없어 전력을 다지할반만나체삶 는편력모동지통단념재실만 인을술라이숲인에념활의는은는시취을갈안달속 속연회의 주요기능을 오늘날 다시금 전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춤·농악·민요등 민중예술의 실질적 담당계층이 되어야 할 민중은 이미 정책적 대중문화의 강요속에서 미의식과 판단의식, 생활양식이 획일화되고 사회적 눈감에 빠져 대학내 문화운동의 최종적 도달점인 민중성및 현장성의 확보는 더욱 어렵게되고있다。

여기에서 소비문화에의해 드리워진 두꺼운 껍데기를 벗고, 갈롯어진 민중의 문화창조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민중 생활속의 예술을 실현·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민중 공동체적 회의식의 예술적 승화』라는 민중의 현대적 계승과 대학인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시대의 일반민중들에게 되돌려져야한다는, 대학의 마당이 아니라 일반민중들의 생활마당에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피할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려진 것이다。

다시말해 대학사회의 문화운동의 주체들은 대학내에서 그 실리적 대립에서 비롯된 국로분단이라는 가장 본원적인 모순을 나타낸 말이 아닌가 한다。

▲원시적 인간은 본능의 욕구충족에만 급급했을뿐 다른 세계를 설계하지는 않았던것으로 보인다。

차츰 文明의 발달로 말미암아 보다더 나은, 理想的인 목표를향해 수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의 문명을 이룩하였다。

또한 사상의 경과에 따라 좋고 좋기는자격이 되고, 後退는 서로 간격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前進는 폭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人之常情 이다。 ▲특히 이 넓힘과 좁힘을 결정하게된 것이 會를 결성하게된 동기라고 말한 안네나 희장한룬은 『써클들이 배양되어 있지않은 것이 활동의 장벽』이라며 『학교의 무리한 지원을 기대할수 없어 전력을 다지할반만나체삶 는편력모동지통단념재실만 인을술라이숲인에념활의는은는시취을갈안달속

▲대중문화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수있는 대학문화창조는 시급한 문제이다。

창작극 운동의 보편화 작업도

주체적生活藝術 創造가 중요한 과제

「더불어 어울려 노는」 놀이돼야

연극 전통문화의 접근을 유도하여 그하나로 탈춤이라는 기층문화에 관심을 갖게된다。 한국문화의 전위체로서 대학문화가 다분히 선구지향적 성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에 대한 스스로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상승작용으로 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의 대학마다 탈춤써클이 생기는 양적팽창을 거듭해왔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양적팽창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모순에 대한 70년대 이후 대학인들의 끊임없는 극복의지와 민족문화 실현의 열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양적팽창 과정속에서 그때까지 전통적인 기존 탈춤을 고수하던 대학사회의 탈춤은 각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극 운동은 비단 대학에서 그치지않고 70년말이나 80년대초를 전후로하여 농촌과 도시변두리, 공단지역, 교회등지에서 뜻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산되고 공동창작, 공동작업으로 뿌리를 내리고있다。 이과정은 문화운동 주체의 결속력과 이해관계의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극화함으로써 「더불어 어울려 논다」는 대동놀이의 가능성을 실현해 보이고있다。

그러나 마당극 운동이 전개되면서 대학인들은 필연적 기본결의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 민중층의 생활 그속의 부대낌 속에서 놀아졌던 탈춤·농악들은 대학인에 이른것이다。 그러나 탈춤·농악·민요등 민중예술의 실질 담당계층이 되어야 할 민중은 이미 정책적 대중문화의 강요속에서 미의식과 판단의식, 생활양식이 획일화되고 사회적 눈감에 빠져 대학내 문화운동의 최종적 도달점인 민중성및 현장성의 확보는 더욱 어렵게되고있다。

여기에서 소비문화에의해 드리워진 두꺼운 껍데기를 벗고, 갈롯어진 민중의 문화창조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민중 생활속의 예술을 실현·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민중 공동체적 회의식의 예술적 승화』라는 민중의 현대적 계승과 대학인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시대의 일반민중들에게 되돌려져야한다는, 대학의 마당이 아니라 일반민중들의 생활마당에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피할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려진 것이다。

다시말해 대학사회의 문화운동의 주체들은 대학내에서 그 실리적 대립에서 비롯된 국로분단이라는 가장 본원적인 모순을 나타낸 말이 아닌가 한다。

▲원시적 인간은 본능의 욕구충족에만 급급했을뿐 다른 세계를 설계하지는 않았던것으로 보인다。

차츰 文明의 발달로 말미암아 보다더 나은, 理想的인 목표를향해 수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의 문명을 이룩하였다。

또한 사상의 경과에 따라 좋고 좋기는자격이 되고, 後退는 서로 간격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前進는 폭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人之常情 이다。 ▲특히 이 넓힘과 좁힘을 결정하게된 것이 會를 결성하게된 동기라고 말한 안네나 희장한룬은 『써클들이 배양되어 있지않은 것이 활동의 장벽』이라며 『학교의 무리한 지원을 기대할수 없어 전력을 다지할반만나체삶

〈문과대 철학과〉 尹時林 <55>

새책 안내

80년대의 상황과 논리
李泰昊 社會評論集

光州출신으로東亞日報社 기자생활을 하다가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사건으로 해고된 후 「東亞鬪委」 委員이면 이태호씨가 社會제문제를 다룬 本書를 출간했다。 「70년대의현장」 「근로자의 벗」에 이어 세번째 저서인 이책은 1부 진실에의목마름 (時論) 2부 부활과 해방의 논리 (인터뷰) 3부 전환기의 社會相 (자료) 으로 구성돼 있는데 허위로 가득찬 사회에서 진실을 발견해 내려는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잘 나타나있다。
<아침刊346面·3,500원>

植民地時代의 文學硏究
金治洙外共著

일제 식민지시대에 활동하던文人들의 작품세계와 그들의 의식을 연구·조감한 논문들을 모은 「植民地時代의 文學硏究」가 도서출판 깊은샘에서 출간되었다。

金治洙씨의 「植民地時代의文學」을 필두로 金潤東씨의 「蕉海 韓龍雲論」 및 吳鎔藩씨의 「芝溶詩의 環境」 李普榮씨의 「植民地時代의詩人의 姿勢와 詩的 成果—<李相和論>」 등 총 14작품이 실려있는 本書는 자유와 文學, 즉 당대상황과 문학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체제 탈피를 위한 시대인식및 극복의 과제를 던져주고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作家와 作品年譜가 실려있다。
<깊은샘刊·328面·3,500원>

韓國文壇 裏面史
金東仁外 共著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문단은 파란만장한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해왔다。 문단이 형성되어 오는 과정에서 동인지나 紙·誌들을 중심으로한 문인들의 독특한 기행, 기벽과 일화들이 어우러져 한 양상을 형성하여 문학사를 이야기할때 여러가지의 명칭을 사용해왔다。 안이 있으면 겉이 있듯이 정리된 문단이 있으면 그 이면에 깔린 내·외적상황이 있다。 지금까지 한꺼번에 발표되지않은 문단 이면의 관계글들은 문학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본다。
<깊은샘刊·419面·4,800원>

望鄕

허 진 석

하루에 한번 집을 떠나도
모르지, 이름으로 남은 할아버지
첫걸음 읊길때 등 뒤의 풍경
낯선 서류를 둘고 선 젊은 互人
손흔들며 회끄무레 웃고 있던 것。
또 뒤에선 밑향기 저녁내 흐르고
오색으로 흐드러지던 낯은 울타리。
듈아보지 못하며 손 마주잡고
방랑의 컬음 느릿이 쓸쓸하던 길
생각도 뭇하지。

나 여기서 언제나
하루에 한번 집을 떠나며
돌아보기도 하네, 스믈여덟평。
몸 밖에 난 내 아이들 날 따끈히 바라보고
아내는 나눠가진 체온의 손 가리고 서있지。
아내의 옷, 국방색 믐빼,
오늘 아이들은 내게 볼펜자루를
구해달라 졸랐네, 몽당연필처럼
키작은 아이들。
아침은 먼지낀 냬 안경 너머에서 반짝이고
햇살 건너에서 한적하게 솔렁이며
날을 세우는 물빛 희망。

우리 오랜 할아버지 할머니 처럼
나 언제나 이 풍경을 벗을 수 없네。
이따금 술에 젖는 미칸
때로 시간을 잊는 팔다리를 끌며
그리워하는 식구들 등 뒤의 풍경
두고온 냬 뱃속 흙들을 하여。
받아본 일 없는 약속
들아가리란 믿음 하나 만들어 가졌네。

<文科大 國文科>

社 告

새 만화필자를 찾읍니다

「고기리」에 이어 날카로운 知性人의 눈을 가진 새만화필자를 찾읍니다。 그동안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고기리」는 필자의 사정으로 본지를 떠나게 되었읍니다。

본교 재학생으로 뜻이 있으신 분은 오는 15일까지 대학內外문제를 주제로한 5회분 정도의 만화를 文化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大新聞社

文化短信

한생문학작품공모 30일까지 「詩文學」社서

월간 「詩文學」社는 제13회 전국대학생 문학작품을 공모한다。

모집부문은 단편소설·시·시조등이며 마감은말일까지이다。

알림

필자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호 만평은 쉽니다。

무선통신 기초지도도 계획
민간외교 역할담당

무선통신 기초지도도 계획 민간외교 역할담당

우리나라로 최초의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해 초청기의 고등이 적지않음을 시사하기도했다。 그러나 본회에서는 무선통신의 기초지식이 없는 전파를 매개체로 하여 좁게는 여할실력향상과 무선통신 개척에 없는 노력을, 넓게는 세계인과의 대화로 민간외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취지아래 조직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同석상은 여름방학동안으로 그동안 이렇다할 활동이없었으나 학기초부터 20명의 회원이 KARL(칼F·마르쿠어 무선연맹) 誌를 받아보는등 무선 발족의 첫걸음은 대단하다。

고교시절 무선통신을 한 것이 會를 결성하게된 동기라고 밝힌 안네나 희장한룬은 『써클들이 배양되어 있지않은 것이 활동의 장벽』이라며 『학교의 무리한 지원을 기대할수 없어 전력을 다지할반만나체삶 는편력모동지통단념재실만 인을술라이숲인에념활의는은는시취을갈안달속

〈藝〉 안테나 HAM (아마추어무선사) Antenna (회재를 구입할 예정) 이라고 말해 초청기의 고등이 적지않음을 시사하기도했다。 그러나 본회에서는 무선통신의 기초지식이 없는 전파를 매개체로 하여 좁게는 여할실력향상과 무선통신 개척에 없는 노력을, 넓게는 세계인과의 대화로 민간외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취지아래 조직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同석상은 여름방학동안으로 그동안 이렇다할 활동이없었으나 학기초부터 20명의 회원이 KARL(칼F·마르쿠어 무선연맹) 誌를 받아보는등 무선 발족의 첫걸음은 대단하다。

고교시절 무선통신을 한 것이 會를 결성하게된 동기라고 밝힌 안네나 희장한룬은 『써클들이 배양되어 있지않은 것이 활동의 장벽』이라며 『학교의 무리한 지원을 기대할수 없어 전력을 다지할반만나체삶 는편력모동지통단념재실만 인을술라이숲인에념활의는은는시취을갈안달속

2학기 신규써클안내 〈慶州大〉 ①

書石會
자아완성에 도움커
회원모집·호응도가 문제

은 『써클을 배정받지 못해 현재 바둑회와 같이쓰고있은 여러운점이 많지않으나 2학기말 학생회관 이 완공되는데로 써클활동을 교내활동은 물론 타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수준을 높이고 있어야 할것이다。

초창기로써 흠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진 수석의 예술적 가치가 한것에 마음 아직 그러 의 여유가 있을까。

또 현체적인것에 치중하다 정신적 가치마저 잃어버리는 소홀고 외양간 고치는 불행한 일이 없길바라는 마음이다。

옛그제의 갈작·스런집중호우로 아우성 치는 수재민, 복태평양상풍에서 말없이 사라져간 그들, 돌덩에 황금물결 하는 농부의 마음이격정으로 나타나는 이9월이 원망스럽기만 하겠다。

정을 아쉬웠다。

이미 몇차례의 탐석을 통해 자연의 진리를 터득하고 희원상호간의 친분도 겨누게 되었다。

발족당시 수석에 관심있은 평평 희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현재 남24명과 여13명으로 총37명의회원을 확보하고있다。 수석회 회장 황법종원씨를 비롯 수석에 대한 토론회, 수석전시회를 갖고 수석과의 無수한 만남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배양하고 그것을 자연과의 친화와 정서순화를 그 목적으로 결성된 동국수석회가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라 말하고 있다。

메아리

▲「사람의 內奏기는꿈의 격이 녀部를 支配하는것 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一目然에 순응하고 이 하고있는 경우이상적 세계一것을 답엔 一일어난는 여습하려는 데서 많은분 러가지 사건에관 제점이 발생되었다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近代病이나 시행착오 한다나 있는것에도 또 현재 나 없이 단시일내에 그것이하게 적응시킨다」라 도 어떠한 ××유지차고 누군가가 지적했다。 원에서 支配한 결과가이는 인간과 자연과의 아닌듯 싶다。 人間을도적응관계, 즉 인간이어 구축하시킨 발전이며한 환경에 처하려라이고, 人間이 수단격이도 고난을 슬기롭게 극 되어 인간은 그만큼복하려면 그에대한 충 허약해지고 끝 精神文분한 지식을 습 化의 타락을 불특하고 있어야 러일으킬수도있향을 나타낸 말 다。 ▲지금우리이 아닌가 한다 주위에는 비난

잔인한 9월

9월호

"Confrontations of the Third Kind"
"소련은 국제 테러리즘으로 이미 3차 대전을 시작했다"

Dare To Be Lazy
無爲는 人間性을 회복하는 길이다

IMF Warns Us of Apocalypse, But....
제3세계의 외채문제
IMF의 정책은 과연 옳은가?

"Writing Is an Old-Fashioned Art" In a High-Tech Society
첨단산업사회의 물결에 그 기능을 상실한 문학

기획연재 : ●한국 名詩 英譯 ●미국소설의 이해 ●영미 희곡 감상 ●성서문학의 향기
生活영어코너 : ●Situation English ●Vital English Grammar ●실용 美 슉어 해설
유익한 읽을거리 : ●관용표현의 뿌리 ●과학수첩 ●나의 해외유학기 ●과학사 에세이 ●세계 명문대학 순례

TOEFL 가이드 (제2회)
최근의 토플 경향과 고득점 대책

원어민 영어 구현 교재! (제2회)
윤리국 학생, 英文일기가 이례적아

소개된 무령왕릉 5호분

해외에 소개하는 70년대 한국대표단편 발역
황석영 작 이영욱 역 Windfall (돼지꿈) 제5회

이달의 영화대사
블루·썬더

값 2,700원

값 2,500원

보너스 부 정기구독지 접수중!

Miracles, Menaces of The 21st Century
미래학자들이 본 21세기의 환상과 실체

Paperbacks for This Fall's Best Reading
美 서점가의 화제작 30選

A Week With Mother TERESA
현대의 성자 테레사 수녀 탐방기 (제2회)

감동의 인간승리 Sing a Song of Courage
어느 뇌성마비의 피아노 콘체르토

여느 유학생의 편지
내가 본 유학의 현장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Pop Song 코너 강인중의 팝 아티스트 순례 (제1회)
영혼을 노래하는 지성 듀에 Simon & Garfunkel

젊은세대에게 주는 글
●왜 고전을 읽어야 하나?
●승리자가 되는 길

걸작단편
에린의 비밀
The Acceptance of Erin (제1회)

이달의 영화대사
마틸이스러너

영어학습을 위한 페이지 : ●속성 실용 영어회화 ●방송영어 청취요령 ●이럴 땐 영어로 뭐라고 하나 ●영작문은 이렇게 ●TOEFL식 모의시험 문제

정기구독 문의처 서울(269)9936(266)9905(265)0509(273)2588 부산(802)7435/7445 대구(45)8890 대전(253)9885 광주(2)2376 전주(2)5328 수원(6)1478 인천(882)4122 강릉(2)2164 (株)時事英語社